

# “자기 보호, 애국 및 굴종: 위만 (偽滿, ‘만주국’) '협력자'의 심리 탐색”

장페이 (난카이대)

원문 중국어, 번역: 홍용일

[논문 초록] 1931년 9.18 사변이 발생한 후, 중국 동북 3성은 함락되고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 하급 장교였던 스밍루는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쓴 일기 《웨이인심심-위만장교의 일기》(웨이인심심=鞏印深深: 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깊은 자국을 의미-역자 주)를 남기는데, 이 일기는 그의 번뇌에 찬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만주국’을 위해 봉사해야 했던 군인이었지만 은연(隱然)하게 항일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국면 속에서 그의 심리는 우환과 불안으로부터 수용, 순종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또 그 과정에는 분노, 굴욕, 회한이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동북지역 점령지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를 표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 연구는 역사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일본군 치하의 강권정권에서 ‘만주국’의 ‘협력자’로 살아야 했던 생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전쟁이 미친 인간 본성의 왜곡을 해석한다. 또한 인간 본성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지금까지 민족국가 시각에서 점령지 역사를 해석해왔던 일원적인 인식구조를 타파하고자 한다.

중국인에게 있어 중일전쟁은 의심할 여지없이 재앙 그 자체였다. 일본군은 14년 동안 동북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했다. ‘황관동’(閩关东, 명-청시기 황허 하류 지역 주민들이 자연재해에 시달리다 살길을 찾아 만리장성 산해관을 넘어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인 인구 대이동=역자 주) 이주민이 주축이 된 동북지역 민중들은 외세 침략자와 신정권을 마주했을 때, 민족적 감정과 생존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모순과 혼란, 의구심 등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었다.

중일전쟁에 대한 일부 역사적 사실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점에서 ‘한간’(汉奸, 반역자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대일 협력자=역자 주) 관련 주제는 민감한 주제이다. 더불어 ‘만주국’의 ‘한간’ 및 군대에 대한 연구도 중일전쟁사 연구의 약점으로 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 연구의 바탕이 된 《웨이인심심-위만장교의 일기》<sup>1</sup>는 만주국 군인이 남긴

<sup>1</sup> 施明儒：《鞏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1-4卷），吉林省政协文史资料委员会，吉林市档案局2011年版，일기의 기간은 1938년 1월 1일 부터 1945년 12월 31일까지이다(그 중 1944년 일기는 분실)

회소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이 일기 자료를 더욱 세밀하게 분류, 정리한 기초에서, 역사심리학과 일상 생활사의 관점을 도입하여, 민족주의의 감정, 생명에 대한 열망, 불안과 순응이 어우러진 당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집단 침략 전략이 점령지민들에게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와 복잡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협력자’들과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의 실상과 감정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 1 ‘만주국’ 장교의 인물상: 스밍루 프로필

1931년 9.18 사변 이후, 일본군은 급속히 동북지역 전체를 점령하며, 국민정부가 동북 각성에서 운영하던 행정 관리 체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32년 3월부터 1945년 8월까지 관동군은 ‘만주국’ 설립을 주도했다. 이 13년 동안 일본은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 사회질서와 경제 생산을 신속히 회복해 갔다. 이를 통해 점령군에 대한 반항 정서를 줄이고, 민중들의 동질성 증대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을 보장하고, 점령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협력자’가 필요했다.

이 연구에서 ‘부역자’, ‘협력자’, ‘한간’ 등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와 확장성에 대한 논의는 생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전쟁 발발시와 전쟁 동안, 그리고 전쟁 후의 ‘한간’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널리 언급되었음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이 용어들은 전쟁 발발과 전쟁 과정, 및 종식 후의 각각의 시기에 따라 각각 상이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복잡한 국가적, 도덕적 감정과 정치적 판단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학자 앤드류 릭비(Andrew Rigby)는 점령군을 위해 봉사하는 협력자의 동기, 목적, 심리에 따라, “사적 이익을 위해 무조건 협력하는 배신자, 점령자를 위해 협력하는 애국적 배신자, 생존을 위해 협력하는 적응자,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조건부 협력자”<sup>2</sup>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협력자’를 정의하자면, 그들은 “점령 권력의 감독과 압력 하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반역’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동북지역이 함락한 동안, 소수의 ‘만주국’ 관료들만이 명백한 반역자가 되었다. 또 일부는 다른 세 가지 범주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협력자와 저항자 사이의 어디인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생활 상태였다.

일기의 주인공, 스밍루는 어쩌면 마지막 세 부류에 속하는 전형일 것이다. 그는 지린성 리수 출신으로, ‘만주국’의 하급 장교이자 동시에 자발적인 비밀 항일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1935년, 스물 두 살 스밍루는 지린성 고향에서 통신병으로 ‘만주국군’에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세 네 명의 친구와 접촉하여 ‘국민당 동북항일구국사’(抗日救国社)라는 이름의 항일 조직을 창설한다. 스밍루는 국민당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직은 국민당과 조직적인 연결고리가 없었다. 1937년에 두 명의 동료는 순직하면서 이 조직은 실질적인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그 후 1938년에 스밍루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만주국군’ 군사학교에 입학하고, 여기에서 몇몇 애국 청년들을 만난다.

<sup>2</sup> [英]安德鲁·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刘成译,译林出版社2003年版, p.23

1941년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지린시로 돌아가 ‘만주국군’ 통신대대 부대장으로 임명된다. 같은 해 5월에는 4명의 청년들과 함께 비밀리에 구국사를 재건하면서 조직원칙 수립과 함께 10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1942년에는 ‘만주국’ 강상군(江上軍, 만주국이 흑룡강과 송화강에 편성한 수상함대-역자 주)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린시를 기반으로 더휘이, 쥬타이, 화톈, 판스, 둔화, 자오허, 봉천 등 지역에 연락처를 설치하였고, 그와 조직원들은 ‘만주국’ 강상군 제 1, 제 2 편대와 안산 쇼와 제철소(鞍山昭和制鋼所)를 파괴하려 했지만, 계획이 누설되며 실패한다.”<sup>3</sup> 결국 그의 항일 활동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무르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스밍루는 오로지 일기를 통해 ‘만주국’과 일본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뿐이었다. 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 보면 일반 민중과 마찬가지로, 친구와 가족을 만나고, 책을 사고 영화를 보며, 가끔은 여행을 다니는 등, 억압과 방황, 순응이 열기설기 얽혀있는 점령지 청년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

스밍루의 이러한 언행을 해부하는 것을 통해 총칼이 겨눠진 생존 환경 속에서 점령지 민중들의 심리 상태와 언행이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 생활 실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생활 곤궁: 그는 왜 ‘만주국’ 군인이 되었는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덴마크 역사를 연구하는 헨릭 데틀레프센은 점령체제에서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새로 군림한 권력자를 수용하는 것은 “모든 역사적 시대에 공통된 관습적인 사회적 행동”<sup>4</sup> 이었다고 언급한다. 총칼의 압박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대다수 민중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이 확보한 단조로운 생산수단으로는 어디 이주할 수도 없었고, 결국 생존 환경이 침묵과 협력을 이끈다. 이러한 전쟁 사회 특유의 압력을 염두에 두어야 만이 우리는 동북지역 점령기 대일 ‘협력자’를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몸부림, 주저함, 방황, 복종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지녔던 스밍루는 어쩔 수 없이 대일 협력을 받아들였다. 일본인들이 그의 고향을 지배하고 있었고, 전쟁은 민중들에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라는 고통을 동시에 안겼다. 뚜렷한 반일 정서와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스밍루는 1938년 신경(현재의 창춘) 견학 시, 난링(南嶺)을 방문해 전황을 탐문했던 기록을 생생하게 남기고 있다. 견학 도중에 그는 9.18 사변 당시 ‘매국노의 착오’로 인해 무모한 죽음을 당했던 병사들을 떠올렸고, 또 넓은 강토를 잃어버렸다는 현실 앞에 깊은 슬픔에 빠진다. 풍부한 자원을 사랑하며 25년 동안 개발되어 왔던 푸순 탄광이 ‘왜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이 찢어졌다. 또 내몽골 린시현 관디진(林西县官地镇)을 방문했을 때, 흥성흥성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숙한 가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절반 이상의 상점이

<sup>3</sup>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 p.1

<sup>4</sup> Henrik Dethlefsen, Denmark and the German Occupation: Cooperation, Negotiation, or Collabor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15:3(1990), pp.198-199.

문을 닫은 정경을 마주했을 때 그는 “모든 풍경이 달라졌다”<sup>5</sup>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과거 북쪽 주요 도시였던 자무스(佳木斯)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왜구의 압박’에 시민들이 신음에 허덕이고 있다”<sup>6</sup>고 기록한다. 헤이허시(黑河市)에 대해서는 “9. 18 사변 이전에는 시정이 서서히 질서가 잡히며 흥하기 시작했고, 소련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문화와 풍속 교류가 이루어 졌다. 물산이 풍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삶에 만족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딜 가나 적막과 어두운 분위기가 흐르고, 상점들은 문을 닫아 버려 빈집만이 남았다”며 그 처참함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내비친다<sup>7</sup>.

앤드류 릭비는 “반역자는 적어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며 고통을 당한 피해자는 마땅히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sup>8</sup>는 것이 곧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전쟁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리고 민족의 대의에 의해 비난 받는 ‘협력자’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의 ‘피해자’였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스밍루도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동북이 함락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경제는 회복되었지만, 민중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다. 무역 단절로 스위스 시계의 부품을 교체할 수 없었고, 물자 부족으로 인해 추린(秋林, 1900 년에 하얼빈에 세워진 다국적 백화점-역자 주)버금갈 정도로 하얼빈에서 큰 규모를 자랑하던 ‘통짜백화점’(同记商场)도 화물 부족에 허덕였다<sup>9</sup>. 지린시의 모든 사진관에서는 웨딩 촬영에 필요한 “2 척짜리 카메라 밀판과 플래시 파우더”는 이미 1 년 넘게 공급을 중단했다<sup>10</sup>. 이외에 물가 급등도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통유상점(同友商店)은 두 근도 안 되는 겨울옷이 70 여 위안에 팔리고 있었고, 정양가(正阳街) 만주서점에서는 평유란이 쓴 《중국철학사》가 10 위안에 달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한때는 교통이 끊겨 직원들이 출장 가려면 부대장이 발급한 여행허가증을 취득해야 이동이 가능했다<sup>11</sup>....

스밍루는 결국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 ‘만주국’ 장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한 일본군인에게 모욕을 당한 후, 그는 “이러한 의미 없는 울화”를 참는 것이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계”를 도모하는데 유리함을 솔직하게 고백한다<sup>12</sup>. 스밍루의 ‘일기’에서는 또 결혼식 준비 과정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결혼식의 기본 예산만 1 천 위안에 달하며 ‘결혼식용 자동차, 음악, 예식장 잔치상, 예복, 촬영’등이 포함되었다<sup>13</sup>. 물자 결핍이 만연한

<sup>5</sup>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 P.70, P.89, P.188

<sup>6</sup> 위의 책， 第2卷， P.347

<sup>7</sup> 위의 책， 第3卷， P.11

<sup>8</sup> [英]安德鲁·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刘成译，译林出版社2003年版， 중문판 P.6

<sup>9</sup>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2卷， P.73, P.290

<sup>10</sup> [英]安德鲁·瑞格比：《暴力之后的正义与和解》，刘成译，译林出版社2003年版， 중문판 P.6

<sup>11</sup> 위의 책， 第2卷， P.159, P.336, P.67

<sup>12</sup> 위의 책， 第1卷， P.56

<sup>13</sup> 위의 책， 第3卷， P.259

사회에서 “집안에 고정자산이 없으면 결코 부자가 아니다”<sup>14</sup>라고 생각했던 스밍루가 이런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국’ 군인의 수입 덕분이었다. 이밖에 인맥자원도 적지 않은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백주특별배급청구증명서’(白酒特別配給請求證明書)를 부대장에게 발급받았고, 당시 자동차가 부족한 지린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두 대를 배정 받는다<sup>15</sup>.

스밍루는 일본에 협력했던 또 다른 원인에 대해 ‘항일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군관후보생 시험’ 직전에 그는 ‘만주국’ 정부에 전향한 것은 그 어떤 ‘공명’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강조한다. 그의 말을 빌면 “나의 이상을 실현해 만신창이가 된 대지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만주국’ 업무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는 항일활동을 보호하며,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과 ‘만주국군’의 전투 소식을 염탐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한다<sup>16</sup>. 또 반만항일사상에 대한 ‘만주국군’의 대응책을 입수하여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sup>17</sup>, 첩보 수단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리고 일부 ‘만주국군’ 동지들을 항일사에 영입하기도 했다<sup>19</sup>.

스밍루의 일기에는 점령지 ‘협력자’들의 생존 환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중들은 민족주의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강권점령의 현황을 개변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자기보호와 치욕을 참는 것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이 곧 최선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희로애락에 대해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 3 ‘백피’(白皮)의 여러 얼굴: ‘반역’인가, ‘애국’인가?

민족주의 시각의 선전 방식은 종종 ‘한간’이나 협력자를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점령군이나 괴뢰 정부에게 봉사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곧 “생명을 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 하는” 행위로 용서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족의 대의 앞에서 개인의 생명권은 하찮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점령지역에서 1 억 이상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망국노”의 역할을 맡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 체계도 허무하다. 스밍루는 일본군의 점령을 증오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언행을 큰 틀에서 보면, 명석함과 곤혹, 감정과 실리가 뒤섞여 있다. 표면적으로는 “백피”(白皮, “반역자”나 “매국노”를 뜻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점령군이나 괴뢰 정부에 봉사하는 사람-역자주)로 ‘만주국’ 정부에 전향했지만, “적심”(紅心, 중국어에서 ‘진심’ 또는 ‘열정’을 의미하는

<sup>14</sup> 위의 책, 第2卷, P.75

<sup>15</sup> 위의 책, 第3卷, P.223, P.259

<sup>16</sup> 위의 책, 第1卷, P.6, P.61, P.181

<sup>17</sup> 위의 책, 第2卷, P.129

<sup>18</sup> 위의 책, 第1卷, P.48

<sup>19</sup> 위의 책, 第4卷, P.247

말. 여기 문맥에서는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한다. “白皮” =외면에 보이는 반역자 혹은 매국자의 모습에 반해 “红心” =실제로는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면이라는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역자 주) 이 드러날 때도 있다. 그래서 그의 다양한 인물 특성을 단순히 “반역”이나 “매국”으로 규정 짓기가 어려워진다.

전반적으로, 스밍루는 명백하게 만주국에 봉사하는 동시에, 비밀리에 일본과 만주국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10년 이상 동안 그는 항일구국사의 비밀 활동과 ‘만주국군’의 일환으로 일하는 것을 병행하였으며, 이는 그의 은밀한 저항 운동을 은폐하는 위장술이었다. 만주국의 장교로서, 그는 행진 도중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 쓰기도 했다. 여성 교사가 병사로부터 무례하게 모욕당하였을 때, 그는 사실을 파악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해당 병사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다. 관동군이 “팔로군 가족 제거”(八路军, 중일전쟁 시기 화북지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군-역자 주)라는 핑계로 30여명의 여성 난민들을 임시 위안소로 데려가려 했을 때, 그는 “비밀리에 첩보반장에게 명령하여 차량으로 옮겨온 여성들을 모두 도망치게 하였다”<sup>20</sup>. 그의 신분과 행동은 일반적인 스파이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며, 일본과 만주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전의 서술 방식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질이 낮은 ‘만주국’ 군인들은 종종 삶에 대한 무기력함, 지역 과시, 이권 교환, 심지어 폭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등 모순적인 감정을 노출할 때가 있었다. 체포된 민병대원들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만주국’ 군인들을 보며 스밍루는 “가슴이 아프고 코가 찡해지는데” 고통을 느꼈다. “우리 모두 중국인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왜 이렇게 무자비해야 하는가?”. 그는 “최근 군인들이 거리에서 강도처럼 행동하고 납치, 갈취, 굴욕,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짐승과 같은 놈들에 치가 떨린다”고 저주한다. 또 “주둔지가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상급 간부들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군수물자 담당관 두 명과 함께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며 대놓고 음란 행위를 벌였다. 병사들도 그런 걸 보며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동북 사람들은 정말로 가축보다 못한 걸까”라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sup>21</sup>.

‘협력자’가 보여준 다양한 면이 곧 정치적인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40년대 초 동북항일연군이 제압을 당하면서 일본군과 필적할 만한 무장 저항 능력은 거의 상실한 채 부득불 비밀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스밍루는 ‘만주국군’ 장교 신분을 이용해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또 기술, 자금, 인력 지원을 확보하여 비밀 작전을 수행해 간다. 스밍루의 소규모 조직은 10년 동안 여러 차례의 행동을 벌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심야에 전단지나 대자보를 붙이는 것에 불과했고 그 효과는 미비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세 명의 멤버가 희생되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일제의 지배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스밍루와 같은 부류들은 일본과 ‘만주국’ 사이에서 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었지만, 가족의 안위가 중요했고, 방황 속에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사익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 이러한

---

<sup>20</sup> 위의 책, 第4卷, pp.187-189

<sup>21</sup> 위의 책, 第4卷, p.17, p.220, p.228

심리 현상 배경에는 자기 보호와 이익을 향한 인간 본능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지식 구조에서, 우리는 일본 점령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인 저항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점령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일제와 ‘만주국’의 통치를 지지했다는 시각도 다소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백피’들이 민족적 이익을 팔아넘겼던 것은 아니며, 동포를 능멸하고, 자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단지 원초적인 악의 본성과 사익을 취하려 했던 자들이 벌인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 4 인간성의 변천: 굴욕과 기회주의?

일제 점령 시기의 스밍루는 민족적 대의와 민중의 수난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늘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감정은 정세 변화와 이익 사이에서 요동쳤다.

1938년 3월, 장교 임명 통지를 받은 스밍루는, 자신이 “괴뢰 정권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솔함”이고 “큰 실수를 범한 것”이라며 자책감을 느꼈다. 단지 “관료제도의 게임”에 참가할 뿐이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자신의 전향이 사람들의 오해를 살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직장이 비밀 저항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곧 “인생은 새옹지마라 어떤 일은 불행이 행운으로 될 수도 있다.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쳐 먹는다. 1940년 8월, 행군 중에 스밍루는 길가에서 “나무껍질을 벗겨 선전 슬로건과 권고문을 쓴 흔적”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생존을 위해 간신히 버티는 만주인들이 보도록 남겨진 것”이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의 동지들에게 “만주국 군대에 대한 동정과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들을 쉽게 신뢰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sup>22</sup>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만주국군’ 신분이었지만 그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걱정했다. ‘만주국’ 건국 6주년 기념일 직전인 정월의 어느 하루,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린의 다푸차이강(大蒲柴河)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자는 하늘이 중국을 위해 “동정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sup>23</sup>고 느꼈다. 또 “동북 사변 10주년 중국 국한 혈제 기념일”(东北事变十周年中国国恨血祭纪念日)을 맞이 했을 때는 “피로 얼룩진 중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에 탄식하며, 그 ‘애한의 공허’(哀恨的空虚)를 달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와신상담(卧薪尝胆)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쌍십절”(双十节) 밤에는, 조용히 “혁명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고 외쳤다. 또 고전 영화 “홍석산”(红石山)을 보면서는, 영화 속 캐릭터가 현대 위인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영화가 “애국 운동을 주창하던 ‘비밀결사’의 실사판”이라 평가하며, 대사마다 “혁명 열사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왕정위 괴뢰정부와 ‘만주국’ 관료들”과 같은 “외세 도둑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이권을 누리고 있는 매국노 한간들”을 떠올리며, “사나운 늑대들이 득세하고, 영웅들은 정작 황야에 밀려나 있는” 현실에 경중을 울렸다<sup>24</sup>.

<sup>22</sup> 施明儒：《辙印深深——一个伪满军官的日记》第1卷，P.28,P.184

<sup>23</sup> 위의책，第1卷，P.20

<sup>24</sup> 위의책，第2卷，P.70,P.129,P.51

하지만 정작 본인이 생존을 위해 ‘만주국’에서 한 자리를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스밍루의 마음 상태는 점점 복잡 해졌다. 1942년 9월, 그는 사소한 일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게 된다. “정복당한 민족은 항상 정복자에게 억압당한다”고 탄식을 하던 그는, 자신이 결코 “정복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10년간 이어온 투쟁 경험과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부득불 “특정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을 뿐”이라 해명한다. 그는 자신이 “청년 사업”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거스르”고,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부조리와 모욕, 불합리한 대우”를 수용했으며,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확보한 “유일한 투쟁 기반”을 생각하며 침묵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자신의 몸 전체 혈관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은 여전히 뜨거운 피”라고 언급한다<sup>25</sup>.

이와 비슷한 일들이 스밍루에게 한 두 번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1943년 8월, 스밍루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목재공장에서 장작을 구매하려고 하자, 만주 사람에게는 팔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만주인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전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일 때문에 스밍루는 일기에서 “엄숙한 군관이 그런 비열한 일을 할리가 있겠는가?”라고 적으며 크게 분노한다. 1945년 8월, 그는 양쪽 발이 굽아서 거동이 어려워지자, 전투 명령을 실행할 수 없었다. 병가를 구했지만 일본군에게 거부당했다. 그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고통을 참고 전투에 참여해야만 했다. “가치 없는 피와 땀을 흘리며 매국노의 오명마저 떠안고 있다”며 또 한 번 좌절한다. 일본이 패배를 선언했던 1945년 말, 그는 항전의 승리를 되돌아보며,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을 금할 수 없었다. 존재감 없는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밀려들며, 항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정작 “항전에서 공적을 세우지 못하고,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데에 있었다. “아직도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못한 채, 여전히 ‘한간’, ‘노예’라는 모자를 쓴 채 떠돌고 있다”는 후회였던 것이다<sup>26</sup>.

스밍루는 처음에는 ‘만주국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꼈지만, 점차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순응과 불가피함이 뒤섞인 불만, 분노, 굴욕을 경험했으며,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었다. 1938년에 ‘만주국군’에 가담한 후 스밍루는 1941년 말까지 중국의 항전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을 관망하며 1942년부터 비관적인 인식을 품게 된다. 민족적 대의는 잊지 않았지만, 일본과 ‘만주국’에 순종하는 것과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저항의 초심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굴욕을 인내하고 있는 한 군인이, 자신의 안락을 위해 대의를 잃어버린 채 비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족적 대의와 생존 본능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되지는 않는다. 총칼 아래에서의 인간 다양성의 발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존재적 본질일지도 모른다.

---

<sup>25</sup> 위의책, 第3卷, P.71

<sup>26</sup> 위의책, 第4卷, P.57,P.225,P.298



스밍루의 이러한 복잡성은 특히 점령 지역에서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강권에 맞서 어떤 사람들은 저항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팔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밍루처럼 핏박 속에서 순종하며 점차 둔감해진다. 항일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게릴라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만주국’이 영, 미에 선전포고를 한 후 학창 시절의 동창이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서자 이를 역겹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sup>27</sup>. 하얼빈 시민들은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sup>28</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리(昌黎)의 남자들은 대부분 한가하며, 여자들은 화려하게 차려 입고 있었다”. 분 냄새가 거리 곳곳에 표류하고, “장사꾼 딸들은 망국의 비애조차 모른 채 여전히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sup>29</sup> 이처럼 스밍루가 묘사하는 점령 지역 생활상을 통해 민중의식을 들여다보면, 점령 초기의 우환이 1940년대 중반에 이르자 점차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대의’와 ‘인간의 책임’을 다하여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로한 어머니를 집에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sup>30</sup>. 이에 스밍루는 “정세에 따라 적에게 굴복하고 현실을 택한 사람들은 일단 용서를 받아도 된다”고 말한다<sup>31</sup>. 강권 주도의 식민지 현장에서, 민중들의 애국 표출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표현의 한 형태이며, 전란 속의 복잡한 인간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일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사회적 압박을 조성했다. “영토 침략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전황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지,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의 이해관계가 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sup>32</sup>. 대부분 사람들은 이에 대부분 순응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 보호와 사익 추구 본능 때문이었다”<sup>33</sup>. 사람들은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일 것이며, 결국에는 국가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했다. 그래서 더더욱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개인주의는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집 문 앞 눈만 쓸어라’(各扫门前雪, 자신의 일에만 신경써라는 뜻-역자 주)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는 ‘영웅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권 정치에 직면한 복잡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한낱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론 (補論)

전시 중국에서 함락된 지역은 동부 지역에 걸쳐 있었고, 이 지역 인구는 1억 명 이상에

<sup>27</sup> 위의책, 第1卷, PP.111-112, P.124

<sup>28</sup> 위의책, 第2卷, P.334

<sup>29</sup> 위의책, 第4卷, P.205

<sup>30</sup> 위의책, 第2卷, P.47, P.11

<sup>31</sup> 위의책, 第1卷, P.124

<sup>32</sup> [加] 卜正民: 《秩序的沦陷: 抗战初期的江南五城》, 潘敏译, 商务印书馆 2016年版, p.38

<sup>33</sup> 刘熙明: 《伪军——强权角逐下的卒子》, 台北稻香出版社 2002年版, p.108

달했다. 일본의 대중 침략기간을 보면, 대만 통치 50 년이 가장 길었고, 동북지역은 14 년, 그리고 짧게는 7-8 년에 그친 지역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제 점령기 동안, 일본과 ‘만주국’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일제와 ‘만주국’이 노동자와 위안부를 강제로 징용하고, 전장에서 살인과 노략을 일 삼으며, 중국의 국민 경제 생활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는 단지 점령지역에서의 한 가지 상황에 불과하며, 실제로 주를 이루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다(潛流下的日常生活才是主体, 끊임없는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은 계속되며, 이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이라는 뜻-역자 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점령기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파편적인 인상만 가지게 만들었다. 일본 침략자들이 점령 지역에서 물자를 약탈하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 만행을 저질렀다는 등, 이러한 감정적 색채가 강한 담론은 일본과 ‘만주국’의 통치 실태와 피점령지 기층 사회 상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34</sup>. 이렇게 점령 지역의 기층사회 주민들은 국가주의적인 “원죄”의 낙인이 찍혔는데, 이는 분명히 공정하지 않다. 정치적인 고압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떠한 심리 변화를 겪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탐구야 말로 야만적인 침략과 정치적 고압이 어떻게 인간성 훼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는지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줄 것이다.

일본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도망 혹은 저항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 현장을 벗어날 여력이 없어 오로지 침묵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다. 그들에게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조차도 일상생활의 연장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초기의 폭력적인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일종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나타나던 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혀 간다. 이렇게 시간은 사람들이 점차 새로운 권력의 통치에 적응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갈망이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규범을 압도할 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기 시작하며, “협력자”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본과 괴뢰정부에 협력하는 것과 오로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일본과 괴뢰 정부의 선전에 호응하여,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그 “정치적 타당성”을 주창하며 이익을 맞바꾸려고 한다. 반면에 후자는 일상적인 생계 유지 방식으로, 정부 부문, 경제 부문, 교통, 우편, 신문 출판, 상점 등 영역에서 생계를 위한 돈 벌이 행위이다. 이러한 노동은 한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행위이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 대가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역사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고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 사조(思潮)는 외부 침략에 대항하여 민중의 사기를

<sup>34</sup> 潘敏：《江苏日伪基层政权研究 1937—1945》，上海人民出版社 2006 年版，pp.1-2

끌어올리고, 민족-국가주의가 바탕이 된 서사를 전개하는 역할을 하며 점차 저변을 넓혀갔다. 그 과정에는 민중의 생존권을 홀시하는 경향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일상 생활의 영역 탐구에서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다. “도처에 매국노가 넘쳐나네! 우리의 땅 위에서 적을 섬기니, 적을 원망할 것도 없다. 그들이 채찍으로 우리를 통제하니,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런 굴욕이 또 없구나.”<sup>35</sup> 민족적 기개와 생사를 무릅쓴 저항 정신을 높이 치켜세우며, ‘협력’을 망국으로 치닫는 길로 인식하는 시각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족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간들이 등장했던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일전쟁사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의 역사’이기도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강권 통치하에서의 생존”은 보통 ‘한간’이나 ‘협력자’와 연관된다. 이러한 시각은 도덕적 판단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사고를 구속하기도 한다. 강권 통치하에서의 생존이라는 시각에서 동북지역 대일 ‘협력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심리를 고찰할 때, 우리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보다 더욱 어둡고 복잡한 상황과 선택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착안은 중일전쟁사라는 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장페이(江 沛 / JIANG, Pei)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교수, 난카이대학 중외문명교차과학 연구센터 집행 주임. 중국 역사학회 이사, 중국 현대사 학회 부회장, 텐진 역사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난카이 대학 역사학부 학부장을 역임했다. “중국 근대 교통사회사 총서”를 편저하고 일본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타이완 정치대학 석좌교수를 역임. 주로 민국사와 중국 근대 사회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국가사회과학기금 수석 전무가로 항일전쟁 연구 특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 저서: “전국정책파(战国策派) 사조연구”, 천진인민출판사, 2001년. “국민당 구조사론”(하권), 중화서국, 2011년. “도시화 과정 연구”(중화민국 역사 총서 9), 난징 대학 출판부, 2015년.

---

<sup>35</sup> 毛泽东:《祭黄帝文》(1937年4月5日),《新中华报》1937年4月6日,第1版.